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 양돈인의 대변지로

전국 양돈인들의 대변지이자 양돈업계의 길잡이인 「월간양돈」지가 7월 1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의 맥을 마감하는 뜻에서 창간 10주년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양돈인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창간된 「월간양돈」지는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같이 「월간양돈」지가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본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하여 정부·국회·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업계의 관계자와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본지의 발행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대양돈산업의 초창기이던 79년, 미미한 국내양돈 기술수준과 각종 정보의 부재속에서, 사상 유례없는 양돈불황에 처했을 때 첫 울음을 터뜨린 「월간양돈」지는 10년간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실로 많은 사양·질병·육종·영양 등의 새로운 기술과 각종 양돈정보를 제공해 왔고,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월간양돈」지는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과 더불어 양돈인들과 동고동락을 해 온 전문잡지로서 양돈업계와 양돈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월간양돈」지의 발전이 곧 양돈산업의 발전이라고 할 정도로, 「월간양돈」지는 한국양돈역사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양돈산업에서 「월간양돈」지가 맡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며, 창간 10주년을 시점으로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 탈이데올로기를 선언하고 나서는가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입개방압력도 불사하는 냉혹한 국제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침내 정부는 4·8 조치로 243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예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양돈업계는 쇠고기 수입여파와 돼지 생산과잉으로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화의

# 최선 다할터

진행과 더불어 국민대중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로 양돈장의 폐수처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양돈장의 인력난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양돈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세계는 지금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든지 국제경쟁력이 약하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밑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의 농축산물로부터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에서 상대적 우위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개개인이 종돈을 개량하고 생산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 비해 절대 불리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하에서의 개인의 생산기술 향상 노력은 사상누각과 다를바 없습니다.

축산원자재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세·부가세의 철폐, 전근대적인 유통체계와 도축장 시설의 개선, 육가공산업의 발달을 통한 돈육소비의 촉진과 양돈인이 주인되는 자조금제도의 도입 등이 양돈업계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같은 과제는 물론 생산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전양돈인들이 뭉칠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돈인 각자는 민주화 시대의 흐름속에서 나 자신이 바로 양돈산업의 주인이자 주체자임을 명심하고, 양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개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창간 10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지는 양돈산업이 처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2의 창간을 하는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월간양돈」지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닥치더라도 양돈인과 함께 하는 동반자,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후원자, 양돈인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맞으며 양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성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월간양돈」지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전양돈인과 함께 「월간양돈」지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